



폭염 습격...가축들의 비명

광주·전남, 한달새 닭·오리·돼지 28만 마리 폐사

닭 25만마리 '최다'...가축재해보험 보상 최고 예상

폭염이 이어지면서 광주·전남 지역에도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폐사하는 가축이 급증하고 있다. 4일 NH농협손해보험이 가축재해보험 폭염특약으로 접수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28일부터 8월3일 사이에 폐사한 광주·전남 지역 닭·오리·돼지는 28만837마리로 집계됐다. 가축 종류별로는 닭이 25만9080마리로 가장 많고 오리가 2만1677마리, 돼지가 80

마리다. 전국적으로는 123만4627마리로 닭이 121만730마리로 가장 많고 오리가 2만3477마리, 돼지가 420마리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에 폭염특약이 추가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보험금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농협손보가 올해 전국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폭염 특약 관련 전체 보험금은 2013년(18억3700만원)이나 2014년(21억

2600만원)보다 많은 31억5900만원 수준이다. 처음 보상이 이뤄진 2012년에는 심한 폭염이 발생했지만 가입자가 많지 않아 접수된 폐사 건수가 48만2000여 마리에 그쳤다. 이듬해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2013년 6월28일부터 8월28일까지 접수된 폐사 건수는 186만2061건에 달했다. 농협손보의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닭 등 16종의 가축에 대해 각종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에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기간과 보장기간은 1년이고,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특히, 농협손보가 2012년부터 신설한

폭염특약은 더위로 인한 가축 폐사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닭·오리 등 가금류와 돼지가 가입 대상이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현 추세로 미뤄보면 폭염으로 인한 올해 전체 폐사 건수가 전국적으로 200만 마리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특약이 신설된 지 3년이 지나 가입자가 늘었고 올해 폭염이 예년보다 심한만큼 보상도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9월까지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대비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 가축 폐사 및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심폐소생술 배우는 꼬막손

4일 오후 광주 북부소방서와 의용소방대원들이 패밀리랜드 수영장을 찾은 아이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세월호 인양 중국업체 선정...내년 7월까지

〈상하이셀비지 컨소시엄〉

‘부력재+철재빔+크레인+플로팅 독’ 인양방식 채택

세월호 인양업체로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셀비지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인양 시점은 내년 가을에서 7월까지로 앞당겨 태풍이 오기 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상하이셀비지 컨소시엄과 세월호 인양계약을 위한 2주간의 협상을 마치고 4일 협약에 서명했다. 계약은 협약 내용대로 조만간 조달청과 상하이셀비지 컨소시엄이 체결한다. 홍총(洪冲) 상하이셀비지 국장은 "이번 사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미수습자 9명에 대한 온전한 수습"이라며 "모든 역량과 장비, 인력을 투입해 전력으로 사업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상하이셀비지는 중국 교통운수부 산하 업체로 지난달 중국 양쯔강에서 침몰한 유럽선 인양작업에 참여하는 등 약 1천 900건의 선박구조 작업에 참여했다. 상하이셀비지는 우리나라 업체 엔아이와 지분을 7대3으로 나눠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해수부와 상하이셀비지 컨소시엄은 851억원의 세월호 인양대금을 세 차례로 나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대금지급 시점은 잔존유 제거 및 유실방지 작업 후, 세월호 선체인양 및 지정장소에 접안 후, 세월호 육상까지 완료 후로 정했다. 접수부 부상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주무관청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상하이셀비지 측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세월호 인양방식은 선체에 구멍을 뚫지 않고 상하이셀비지 측이 제안한 대로 부력재와 철재빔을 이용하기로 했다. 세월호 인양은 잔존유 제거→장문·출입구 안전망으로 폐쇄 등 유실방지 작업 → 선내 막대형 부력재 32개 및 압축공기 주입 → 선수 부분 외이어 갑아 크레인 연결해 살짝 들어올림 → 세월호 아래에 3.5m 간격으로 24개 철재 리프팅빔 설치 → 리프팅빔을 크레인 1대에 연결해 수심 23m까지 올려 등거차도 폭 2km 이동 → 플로팅 독에 올려 목표소행까지 90km 이동해 육지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실종자 9명 시신 유실방지

선체·주변 바다 4중 그물망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실종자 9명의 시신이 유실되지 않도록 모든 창문과 출입구가 폐쇄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상하이셀비지 컨소시엄과 세월호 인양협약을 체결하면서 "세월호 인양의 궁극적인 목적이 미수습자 수습이기에 4중의 유실방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실종자 유실방지를 위해 6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세월호 현장조사를 통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 851억원 외 얼마를 추가로 투입할지 결정한다. 상하이셀비지 컨소시엄은 실종자 유실방지를 위한 1단계로 세월호의 접근 가능한 모든 창문과 출입구에 그물망을 씌워 폐쇄한다. 2단계는 대형 그물망으로 선체 전면과 후면을 감싼다. 선체 전면은 통유리로 돼 있고 후면은 바다에 닿으면서 일부 파손된 상태다. 선체 후면에 그물망을 설치할 때는 해저 바닥 2m 정도를 파내 바닥면부터 그물을 씌워 예정이다. 세월호는 조류가 우리나라에서 울돌목 다음으로 빠른 맹골수도 수심 약 44m 지점 좌측면이 바다에 닿게 누워 있다. 3단계는 세월호를 살짝 들어 올려 해저 바닥에 철재 리프팅빔을 깔 때 리프팅빔 위에도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이다. 바다에 닿아있던 세월호 좌측면에 구멍이 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실방지책 1~3단계는 상하이셀비지 측이 제안했으며, 해수부가 4단계를 추가로 요구했다. 4단계는 조류방향에 따라 세월호 주변 바다에 대형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4 해질 19:33
 달출 22:46 달몰 10:54

마음은 시원한 계곡에~
 북대방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25/34	보성	맑음	22/33
목포	맑음	25/33	순천	맑음	24/34
여수	맑음	25/31	영광	맑음	25/33
나주	맑음	24/34	진도	맑음	24/32
완도	맑음	24/32	전주	맑음	24/35
구례	맑음	22/36	군산	맑음	24/33
강진	맑음	23/32	남원	맑음	22/23
해남	맑음	24/32	홍산도	맑음	22/28
장성	맑음	23/3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
남부 앞바다	남~남서 1.0~2.0	남~남서 0.5~1.5
남해 앞바다	남~남서 0.5	남~남서 0.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남서 0.5~1.0	남동~남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운동: 40
- 빨래: 90

◇주간 날씨

6(목)	7(금)	8(토)	9(일)	10(월)	11(화)	12(수)
☀	☀	☀	☀	☀	☀	☁
25/35	25/34	25/34	25/33	24/32	24/30	24/28

하루 한잔 커피, 치매 위험 낮춰

섭취 늘리면 역효과

커피는 건강에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커피는 기존의 수많은 연구를 통해 심장병이나 우울증, 2중 당뇨병, 파킨슨병 등의 위험을 줄이고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피 섭취를 늘리면 오히려 치매나 알츠하이머로 이어질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MCI)의 위험을 급격하게 높인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4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탈리아 바리알도모도대학 연구진이 65~84세의 이탈리아인 1445명을 연구한 결과, 하루 1~2잔의 커피를 꾸준히

마시면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보다 MCI 위험성이 낮아지는 효과가 뚜렷했다. 여기까지는 카페인이 신경보호작용을 한다는 기존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커피 섭취량을 늘리면 MCI의 위험성이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잔을 마시던 사람이 그 이상을 마실 경우 MCI의 발생 비율이 1잔을 꾸준히 마신 사람의 약 1.5배, 하루 섭취량을 1잔 미만으로 줄인 사람의 약 2배로 각각 높아졌다. 연구진은 "인지 장애가 없는 일반적 인 노인 중 커피를 전혀, 혹은 거의 마시지 않은 사람이나 섭취량을 계속 늘려가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MCI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국 초·중·고 교사에 성폭력 예방교육

이달 말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진다.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성희롱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교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

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 교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8월 중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성폭력 발생시 즉각적인 보고체제가 유지되도록 대응체제도 재정비해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0여년을 고객과 함께한 **전국1위** 골프멤버십
 전국 명문 300여개 골프장 무기명4인 주중, 주말

정회원 선불 특별회원 모집
호남, 제주 그린피 전액지원

구분	다이렉트1	다이렉트2	퍼펙트(법인)	프라임
총액	3600	1050	1600	950
통장보증	3000			
입회금	600	1050	1600	950
이용기간	5년 180회	5년 180회	5년 280회	5년 140회
이용횟수	월4회 년36회	월4회 년36회	월6회 년56회	월3회 년28회
회원등재	본인+무기명	본인+무기명	본인+무기명3	본인+무기명

* 주중/주말 사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상담바랍니다)

선불 특별회원 가입안내

-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정회원 대우 그린피 혜택
- 호남, 제주 그린피 전액 지원
- 법인 무기명 4인 사용 가능
- 동남아, 중국 무료라운딩(동절기)
- 년2회 국내 및 해외 회원 초청행사

(주)리즈골프 상담문의
(062)371-1800

리즈골프는 2002년도에 설립되어 업계 최다수의 회원님들을 서비스 관리해 드리고 있는 고객만족도 최고의 회사입니다.